

지역 소식통

군산시, 국토대청소 실시

군산시가 봄을 맞아 범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경정비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군산시를 찾는 상춘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군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택가 도로변과 공터는 물론 채반식문화관 주변, 산단지역, 진포해양테마공원, 고군산연결도로 및 청암산 주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청소를 벌였다.

특히 오식도동 일출단지 및 박물관 주변지역을 중점 청소구역으로 선정하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 총 350여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했으며, 도로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공사현장 건축자재 및 대형 폐기물을 정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간담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전북지역 각 분야의 기업 CEO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산하협력처(처장 김종영)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제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도제지원센터 등을 이끌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군산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집중점검을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고속도로휴게소, 국·공립 공원, 유원지 등이다.

집중점검 사항은 ▲무신고 또는 표시 기준 위반제품 조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 및 부적합 판정 물 사용 여부 ▲영업장 청결관리 및 개인위생관리 여부 ▲기타 사업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업소 위생·환경정비 지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검사 부적합식품, 원산지 무표시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위험 천만 방파제 호안 출입

군산해수청 안전관리 뒷전

해상 전문가들, 방파제호안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CCTV 설치 등 제시

방파제에서 실족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군산해양수산청의 안전관리 실태는 허술하기만 하다.

봄을 맞아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남방파제와 비응도 일대에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파제호안의 테트라포트(TTP)를 넘나드는 관광객과 낚시객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테트라포트는 원형으로 제작되어 미끄럽기 쉽기 때문에 위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이동 중 발을 헛디뎠다 자칫 아래로 추락하면 인사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 관내 테트라포트 추락사고는 총 24건으로(남방파제 2건, 비응항 12건),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해양수산청은 방파제호안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방파제 입구에 출입금지표와 과태료를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했으나, 몰려드는 관광객과 낚시객의 출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방파제호안을 관리하는 군산해수청은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남방파제와 비응항 방파제호안을 시공한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위험 천만 방파제 테트라포트 위에서 한 낚시객이 낚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상안전 전문가들은 실족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호안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설치 등 대책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한 해상안전 전문가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해경 상황실에서 방송 부위를 활용한 출입통제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군산 내항 일대는 군산시에서 설치한 안전관리용 CCTV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곳은 해상 추락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2016년 1월에 20대 여성, 같은

해 4월 50대 남성이 해안가를 걸다가 실족 해상에 추락했으나, CCTV를 모니터링 중이던 해경에 구조됐다.

앞서 2015년 2월에는 자살기도자, 8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해상에 추락한 남성이 CCTV를 통해 발견돼 구조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방파제 호안에 올라가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해상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통한 24시간 상시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국가위기관리학회 차기 회장 선임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가 국가위기관리학회 2018년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위기관리, 소방, 테러, 범죄 등을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자들의 연구모임으로 전국 100여 개 대학 및 관련 분야에서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전국적인 학회이다. 특히 국가위기관리학회는 행정

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사회과학과 의학, 간호학, 토목·건축공학, 수문학, 기상학 등 재난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학제간 융합연구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양기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포럼 부회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장, 세종시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중부발전(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차기 회장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2017년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근대역사 문화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시간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축제 트렌드를 제시하며 지난 2015년 군산시 대표축제로 성장하여 군산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운영 전반과 대표 콘텐츠 경쟁력 부재 등 부족한 점 역시 안고 있어,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축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표축제의 추진 주체가 담당 부서에만 국한되어 시 차원의 행정력 집중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접 부서가 참여하는 축제 추진체계를 갖추고, 대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 시간여행'에 부합하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발굴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2017년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시기와 추진방향 등을 위한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를 오는 17일 개최하고, 민간 중심의 축제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또한 오는 4월 종료로 완료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 본격화

익산시,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진행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최종 통과됨에 따라 내년 익산시에서 열리는 제99회전국체전준비가 본격화 됐다.

이번 중앙투자 심사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시의 노후화된 종합경기장(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338억을 투자심사 의뢰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는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최종 승인했다.

시는 행정부의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2018년 제99회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장소인 익산종합운동장과 익산실내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 완공하여 10월에 전국체육대회를 개막한다.

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진행되는 익산종합운동장을 예산절감을 위해 신속하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제체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국체전 이후에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또한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전국체전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각종 시설개선은 물론 홍보, 도심환경정비 등을 시민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주 개최지인 익산시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종별 경기는 익산시를 포함해 14개 시·군 67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전국체전 후에도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전 등 연 이어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가 열려 지역경제활성화에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업기술원, 삼락농정 모델개발 현장코칭과정 교육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도정의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조기 정착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도내 농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원 상록관에서 삼락농정 모델개발 현장코칭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삼락농정 비즈니스 교육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을 기치로 전북도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시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현장코칭과정과 농장설계과정 등 10월말까지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아카데미 박상식 강사는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및 융복합 농업을 주제로 6차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치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더욱 부각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with text: '동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Includes logos for Dream Hub GUNSAN and GUNSAN CITY, and an image of a child painting.